

OGP 소개 및 참여형 거버넌스 제언

박지환 변호사

About Open Government Partnership

- (1) Endorse a high-level Open Government Declaration
- (2) Deliver a country action plan developed with public consultation; and
- (3) Commit to independent reporting on country progress going forward.

- <Linking OGP and the SGDs in Macedo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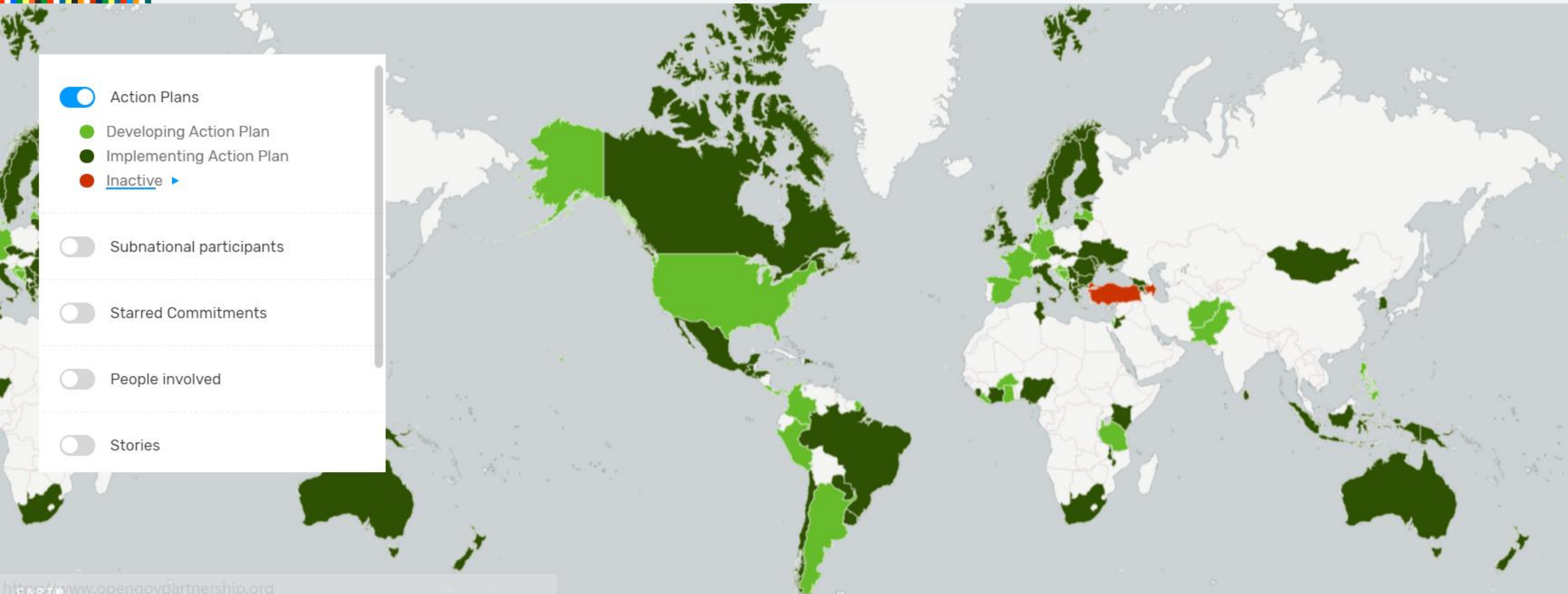
- Action Plans
- Developing Action Plan
- Implementing Action Plan
- [Inactive](#) ▶

Subnational participants

Starred Commitments

People involved

Stories



About Open Government Partnership

행정자치부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지난 2월 OGP 운영위원회 선거 출마의향서를 제출했고, 2월 22일~3월 15일(미국 서부시간 기준) 실시된 OGP 회원국 대상 온라인 투표에서 4개 신규 운영위원국 중 하나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12개 OGP 회원국이 출마하였으며, 그 중 우리나라와 함께 캐나다, 이탈리아, 남아공이 선출되었다.

현재 운영위원회 회원국은 프랑스, 조지아, 멕시코, 칠레,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브라질, 남아공이다.

이중 미국, 영국, 브라질의 임기는 올해 9월말 종료된다. 남아공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10월 2차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운영위원국 선출은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해 준 결과다.

특히 우리나라가 1996년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2013년 세계 최초로 원문정보 공개를 실시하는 한편, 2015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점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3.0 글로벌포럼, ▲전자정부 분야 글로벌 협력체인 디지털-5(Digital-5) 장관회의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워크숍 ▲OECD 공공거버넌스 포럼 등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한 것이 선거활동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부와 재외공관 또한 금번 위원국 선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OGP는 오는 9월 국제연합(UN) 정기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신·구 운영위원국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임기는 올해 10월 1일 부로 3년 기간으로 시작된다.

Link: SDG #16 and more

- The principles of open government are embedded across many SDGs.
- Open government principles are clearly addressed in Goal 16.
 - *<Linking OGP and the SDGs in Macedonia>*
- The OGP framework have already equipped its members with some of key elements of what it will take to deliver on the 2030 Agenda.
 - *Helen Clark (Speech at OGP summit 2015)*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via Multistakeholder Forum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Transparency via Multi-stakeholder

○ 참여와 공동창조(co-creation) 기준(2017)

- 정부 및/또는 다수이해관계자 포럼은 시각화 장치,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적절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 진행경위 및 결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대화와 공동창조를 위한 공간과 플랫폼

- 다수이해관계자 포럼은 새로운 정부 및 비정부 관계자의 OGP 프로세스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비하고 있다.
- 다수이해관계자 포럼은 전국적 대면 홍보 및 참여 행사를 주최하고, 여기에 모든 관심있는 국민, 시민사회,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예: 적절한 시간대 및 장소 선정)한다.
- 온라인 포럼을 구성하여 OGP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 논의가 가능하게 한다.

공동주인의식 및 공동의사결정

- 다수이해관계자 포럼은 정부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가 공동 주재한다.
- 다수이해관계자 포럼은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관계자들(시민,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지방정부, 의회, 학계, 민간부문 등)이 참여하여 폭넓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한다.
- 다수이해관계자 포럼에는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되며, 국가행동계획의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주요 결정에는 구성원들이 공동 참여한다.



Leverage: National Action Plan and Independent Report Mechanism(IRM)

- 2년에 한번씩 NAP 작성 및 이행 (현재 2016-2018 NAP 작성 및 제출)
- 작성 및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
- Self Assessment & IRM
- OGP 본부에서 고용한 IRM 평가관이 독립적 지위에서 각 국의 NAP 작성 및 이행을 평가

□ 제3차 OGP 국가실행계획('16.7월~'18.6월) 공약 목록 (6개 부문 14과제)

대분류	소분류	소관부처/소관과	주요내용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아직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적용을 연차적으로 확대 - 2016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290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 제공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를 취합·선정 ○ 원문정보공개에 관한 Best Practice 사례를 전파하고 홍보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 이행을 연차적으로 향상 - 특히, 2015년 말 현재 49.6%의 머물러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공표 이행을 2016년 말까지 55%로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 민간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정보 등 22개 분야 데이터는 2016년에 조기개방을 추진 - 국세청의 국세정보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는 2017년 중 개방을 목표로 하고 판결문정보는 대법원과의 협의·조정 을 거쳐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 평가 - 2016년 21개, 2017년 42개, 그리고 2018년은 주요 핵심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준평가 진행 ○ 품질관리 등급제도의 도입을 추진 ○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한 전문심사원을 양성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률을 2017년에 70%까지 확대 ○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등록할 때 기존 가공이 불가(PDF)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한글, 엑셀)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전환 등록을 유도 ○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포맷(XLS→CSV) 자동 전도도구도 개발하여 제공하며, 기관별 개방데이터 제공 포맷 현황을 측정·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오픈포맷 개방을 유도

	개방표준 재·개정 및 적용 확산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 여러기관이 보유한 공동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해야 할 핵심 데이터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100개의 개방 표준 제정 추진 ○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 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 개발
시민 참여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행정자치부/국민참여정책과	○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디자인 과제 추진(총 382개 ~'16.12) ○ 지자체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국민디자인단 pool 확대('16.7~)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행정자치부/정보자원정책과	○ 2016년 Active-X제거 홈페이지수를 1,638개 홈페이지 3,321개의 Active-X를 제거하고, Active-X Free 달성률 88.1% 목표 ○ 2017년에는 나머지 844개 홈페이지의 2,161개를 제거하여 95.1%를 달성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행정자치부/행정정보서비스통합추진단	○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이 되는 3개 시스템(정부포털+맞춤형혜택안내+민원24)을 우선적으로 통합 ○ 2017년 이후 복지, 워크넷 등 부문별 서비스포털과의 통합·연계를 추진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과	○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에 포함된 194개 정부서비스중 국민이용 건수,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핵심서비스만 선별·제공
반부패 및 공직 윤리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청렴조사평가과	○ 부패방지법 제정 시행, 공공기관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 평가 근거 마련 등을 계기로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 ○ 청렴도 조사 결과에 관해서는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재정투명성 제고	국제원조 정보 공개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실	○ KOICA와 EDCF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약 740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IATI가 선정한 39개 공개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 ○ 나머지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실	○ ODA로 지원되는 개별사업의 목적이나 설명, 사업실시 기간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과 통계제공이 가능하도록 ODA통계시스템 개편

OGP IRM의 한국정부 평가

South Korea Not Pursuing OGP Goals, Review Finds

17 FEBRUARY 2016

South Korea has fallen well short of its stated goal of releasing 10 million government documents annually, according to an [analysis](#) conducted for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South Kore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OGP,” begins the review by Geoffrey Cain, an independent researcher in South Korea. His detailed assessment was recently published by the branch of the OGP responsible for arranging independent reviews of member countries’ performance.

In addition, a citizen group to oversee access issues seems to be operating in private, if at all, Cain found. And a promised list of data to be published in “ten areas of high interest” has not materialized, he said.

Cain also wrote a Wall Street Journal [blog post](#) saying that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chilled” democratic expectations by “stepping up censorship of the press and Internet.”

OGP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측면 한국정부 평가

19 September 2016

Minister Hong Yun-sik
Ministry of the Interior
Republic of Korea

As the 2014 IRM report also found that the National Action Plan was developed with no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this is the second consecutive action plan cycle that civil society was not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ction Plan (see April 2014 letter [here](#)). According to the OGP Articles of Governance, the Criteria and Standards subcommittee will now review the Republic of Korea's participation in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The Support Unit strongly encourages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a concerted effort to involve citizens and civil society in the development of the new National Action Plan, following the current guidelines. The review process will be completed once the Republic of Korea submits a new National Action Plan, ideally no later than October 31, 2016.

OGP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측면 - 2017년 현재



서울시 주도 WeGO, OGP와 '스마트시티' MOU 체결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협조체제 구축 합의

박규리 기자 | bgr88@shinailbo.co.kr

승인 2017.08.25 10:34:35



▲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회(WeGO)의 남영숙 사무총장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CEO Sanjay Pradhan과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사진=서울시)



OGP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제언

- OGP 운영위원국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예산을 참여형 거버넌스 이행의 동력으로 활용, 최근 발족한 OGP MSF를 마중물로
- 정부조직법 개정과 더불어 범 부처간 협력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정무적 역할 중요
- 정보공개법 20주년을 동력으로 정보공개 강화 및 공공데이터 질적 향상을 통한 투명한 정부 구축
- OGP 등 Multistakeholder Forum 구축 및 고도화

○ opengov.kr

○ opengovlab.kr